

스포츠

주력선수 줄부상에 ‘울상’ 짓는 농구부

위기의 농구부 집중조명

강경진 기자 cocoandlisa@khu.ac.kr

지난해 우리학교는 모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 전국 남녀대학농구리그’에서 12승 4패의 준수한 성적으로 전체 3위를 차지해 4강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다. 센터의 부재에도 우리학교 특유의 속공 플레이와 압박 수비로 ‘센터 없는 농구’의 좋은 예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올해 우리학교는 4학년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또 한 번의 위기에 봉착했다. 주력 선수들의 부재 상황에 처한 우리학교 농구부를 조명해봤다.

지난 5월 우리학교 농구부가 ‘2016 전국 남녀대학농구리그’(남녀대학농구리그)에서 벌어진 한양대와와의 경기에서 67-65로 승리하며 동국대, 중앙대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우리학교는 지난 3월 24일 조선대를 70-59로 제압하고 3월 30일 연세대에 79-95로 패해 2승 1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시즌 우리학교 농구부는 주력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며 위기 국면을 맞았다. 센터 김철욱(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지난해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관정을 받았던 바 있다. 이번 시즌 들어 김철욱 선수는 복귀했지만, 4학년이자 주 전력인 가드 맹상훈(스포츠지도학 2013), 포워드 최승욱(스포츠지도학 2013), 포워드 이성순(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줄줄이 부상을 당해 향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김철욱 선수의 복귀는 우리학교의 호기로 작용할 것이지만,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생긴 공백을 남은 선수들이 메울 수 있을 지가 이번 시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연세대전에서는 우리학교의 선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신체조건이 우수한 포워드 전력이 부족해 더블 포스트 플레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한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적 연세대를 만나며 픽앤롤 2:2 공격에 취약점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경기를 참관한 맹상훈 선수는 “팀에 경기를 운용할만한 사람이 없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것 같다”며 “경험 부족이 큰 패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우리학교는 연세대전의 부담을 극복하고 한양대를 상대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회복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 전반 이민영(스포츠지도학 2014), 윤영빈(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번갈아가며 한 박자 빠른 공격으로 선전했다. 신입생 권혁준



지난달 30일 우리학교 농구부가 2016 전국 남녀대학농구리그에서 연세대에 79-95로 패했다

(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와 최재화(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도 약작같은 수비로 한양대를 막아섰다.

포스트맨 박찬호(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는 골밑에서 제 역할을 해내며 신입생의 저력을 보여줬다. 한양대는 특유의 ‘육상 농구’로 꾸준히 득점하며 우리학교를 몰아붙였지만, 끝내 김철욱 선수의 자유투가 승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주력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생각보다 컸다. 농구부를 이끌고 있는 김현국 감독은 “중심을 잡아줘야 할 고학년 선수들이 자리를 비워 힘든 상황”이라며 좁은 포워드 기용 폭, 조직력 부족 등을 현재 우리 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리학교는 현재 포워드 최승욱, 이성순 선수 이외에도 이진희(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 역시 동시에 부상을 당하며 센터 박찬호 선수가 포워드로 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트 플레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때문이다. 김 감독은 이에 대해 “더블 포스트 플레이의 경우 리바운드에서 강점을 가

지지만 백 코트의 수비가 상대적으로 약해져 미스매치가 자주 발생하는 반면, 싱글 포스트 플레이는 가드 기용 폭이 상대적으로 넓고 속도 면에서도 우수하지만 신장이 낮아져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감독은 “이번 시즌 신입생들의 활약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우리학교 농구스타일을 익히지 못해 조직력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2, 3학년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감독은 향후 팀의 전망에 대해 “이번에 골밑 전력이 충원돼 팀이 성장할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덧붙여 “선수들이 우리학교가 기존에 해왔던 속공 플레이, 빠른 공수 전환, 압박 수비에 더욱 매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주장 맹상훈 선수는 “저학년 선수들이 시즌 전반기 동안 기량을 쌓아 후반기에는 4학년 선수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한다”고 주문하며 “특히 신입생 선수들의 역량이 특출나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우승하는데 도움 되고파”

2016 우리학교 농구 이글 ‘루키 3인방’ Q&A

Q. 본인의 포지션과 장단점을 알려 달라.

A. 고등학교 때에는 슈팅 가드였다. 대학에 와서 이민영, 정지우 선수와 교대로 포인트 가드의 역할도 맡고 있다. 슈팅 가드로 활동했던 경험 덕분에 중장거리 슈팅에 강하고 발놀림이 빠른 편이다. 그러나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처음 맡아서 볼 배급과 경기조율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권혁준 선수(가드·178cm)

Q. 앞으로의 포부 한 마디 부탁한다.

A. 지난해 손목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힘들었던 5개월을 보내며 코트 위로 복귀하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다치지 않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남은 경기를 다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학교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우승까지 향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다.

Q. 본인의 포지션과 장단점을 알려 달라.

A. 고교 시절부터 포인트 가드였지만,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선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수를 병행했었다. 물론 지금은 주로 포인트 가드 역할만 맡고 있다. 감독님께서 팀의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운영능력은 칭찬해주셨지만 실수가 많은 점을 지적하셨다. 수비가 약해 강한 압박 수비를 배우려고 노력 중이다.

Q. 대학에 와서 힘든 점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예전에 비해 운동량이 늘어 적응하는데 고생을 했다. 순발력, 스피드를 높이기 위한 피지컬 트레이닝이 힘든 편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기본기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최재화 선수(가드·180cm)

Q. 이번 시즌 목표가 있다면 말해 달라.

A. 지난 3월 ‘제32회 MBC배 수원시 전국대학농구대회’ 예선전에서 중앙대에 패했는데, 돌아오는 11일 중앙대전에서는 꼭 이길 것이다. 중앙대전을 포함한 모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꼭 고학년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싶다. 최종적으로 남녀농구리그 전반기 3위권 안에 드는 것이 목표다.

Q. 현재 센터가 아닌 포워드로 출전 중이라고 들었다.

A. 원래 센터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김철욱 선수의 복귀와 포워드 선수들의 부상으로 파워 포워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파워 포워드로서 돌아와 외곽 수비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전에 비해 운동량이 많아진 점은 힘들다. 그러나 프로로 진출할 때는 포워드로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포워드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다.



박찬호 선수(센터·201cm)

Q. 지금까지 경기하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말해 달라.

A. 최근 10kg 정도 체중 감량을 하며 몸싸움에 약해진 것이 아쉽다. 또 급한 성격으로 여러 번 수비에 실패했다. 우리학교는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약작같은 수비하는 플레이를 배우고 싶다. 리바운드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기는 선수가 되고 싶다.



개교 67주년 기념

2016 경희 ‘웃는 사자상’ 공모 2016 KH Laughing Lion Award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원)생을 찾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정신을 대내외에 드높인 경희인을 추천해주시고, ‘웃는 사자’와 함께 활력과 패기가 넘치는 대학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일시: 2016년 4월 11일(월)~5월 2일(월)
- 대상: 경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 부문: 학술연구/사회공헌/문화예술·체육
- 시상인원: 0명
- 시상내역: 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
(단,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 추천방법: 첨부한 공적서 작성 후 추천(본인 및 타인 추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pr@khu.ac.kr)
- 양식: 경희웃는사자상 추천서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수여식: 추후공지
- 문의: 대외협력처 홍보실 02-961-0023~4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